

예술, AI 옷 입는다

AI사업단, 융합 예술 콘텐츠 발굴·육성...광주시립미술관과 협약 8월 18일까지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 전시...체험형 콘텐츠 인기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시가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제로 AI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시민 체험형 'AI 융합 예술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에 따르면 광주시 산하 AI사업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3일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예술 분야 연계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제도 AI사업단장 직무대행과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예술과 AI 기술을 접목해 문화 예술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AI 산업 육성 및 기술 확산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양 기관은 구체적으로 ▲시민 대상 AI 예술 관련 사업 및 기업 홍보 ▲AI와 예술을 융합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양 기관 협력으로 AI 전시 등 프로젝트 공동 추진 ▲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AI기술과 예술 콘텐츠 및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다채로운 예술 체험을 제공한다며 미래 세대 교육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등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특히 이번 협약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어린이 갤러리에서 AI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을 전시 중인데,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빛나는 광주 도시 탐험'은 AI사업단에서 '도시 문제 해결형 AI 솔루션 개발 및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한 AI스타트업 '카라멜라'가 제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관람자가 직접 경험·교감하는 쌍방향 콘텐츠)로, 도시재생의 중요성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시는 '무등산 어드벤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별빛 놀이터', '꿈꾸는 소원나무' 등 다양한 인터랙티브 체험으로 구성된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한다.

광제도 AI사업단장 직무대행은 "인공지능과 예술을 융합한 다양한 콘텐츠와 창작 프로그램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요 사회 이슈와 인공지능, 그리고 예술을 접목해 창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여러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태극전사 응원해요" 제33회 파리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25일 오전 광주 북구청어린이집 원생들이 오륜기를 직접 만들어보며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영암F1경기장서 개최

10월 25일~27일

2024 전남 캠핑관광박람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전남도는 25일 영암군청에서 '2024 전남 캠핑관광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전남도는 영암군, 전남개발공사 국제자동차경주장(KIC) 사업단, 전남세계문화관광대전 총감독 등이 참석, ▲개막식 및 세부 프로그램별 추진 사항 ▲국제자동차경주장 시설 대관 및 부대시설

관련 사용 방안 ▲행사 총괄 운영 및 기획 세부사항 ▲홍보마케팅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박람회에 5만여명의 관광객과 300여개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캠핑용품·장비 전시, 테마별 캠핑존 운영, 각종 참여·체험 및 공연행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개최 장소의 특성을 살려 카트와 레이싱체험 등도 마련중이다.

올해 3회째인 캠핑 박람회는 전남세계문화관광대전을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페스티벌도 함께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자치경찰위, 치안 현장소통 강화

광산서 등 5개 경찰서 점검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5일 광산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서장 등 지휘부와 간담회를 갖고 치안 현안 사안들을 공유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경찰서 등을 순회 방문, 치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대응,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분야 주요 시책들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 시책인 북부경찰서 '중앙동 일대 범죄취약지구 지원 사업'과 광산경찰서 '월곡동 다문화안전 주민센터 건립 사업' 두 가지에 사업에 대한 추진 과정 등을 살펴보고 점검했다.

안진 광주자치경찰위원장은 "북부·광산서 방문을 끝으로 광주 5개 경찰서를 모두 살펴봤다"며 "이를 바탕으로 27기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 방향을 수립하고 앞으로는 일선 치안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세계대회 1위·코스닥 상장...광주 AI집적단지 기업 성장 쑥~

광주 토종 AI기업 에스오에스랩·투디지트 등 성장세 눈길

광주 국가 인공지능(AI) 집적단지를 산업 생태계로 삼은 기업들이 투자·매출 등 각종 지표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1단계 사업을 통해 광주와 인연을 맺은 기업은 모두 332개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지원기업, 시유치기업, 광주 토종 AI 기업 등으로 분류했다.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한 199개 기업 가운데 실제 법인, 지역 사무실 등을 개소한 115곳도 포함됐다. 광주시유치기업 투디지트는 'Open LLM 리더보드' 세계대회에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95일간 연속 1위를 유지하며 기술력을 과시했다.

Open LLM 리더보드는 미국 인공지능·자연어

처리기술 기업인 허깅페이스가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오픈 소스 초거대 언어 모델(LLM)의 성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이다.

박석준 투디지트 대표는 "스타트업이 LLM 보드 세계 최초로 80점 벽을 돌파하고 장기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AI 집적단지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면서 기술력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I 집적단지 지원을 받은 공간정보 관련 기업 무한정보기술은 2019년 매출액 29억 9300만원에서 지난해 54억 4900만원으로 182%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 한미 뉴욕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서밋(Top)3에 선정됐던 광주시유치기업 페르소

나에이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챗지피티(ChatGPT) 공동 연구·사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광주 토종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세도 돋보인다. 광주에서 창업한 에스오에스랩은 라이다(LiDAR) 센서와 관련 솔루션으로 현재까지 537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해 미국 글로벌 자동차 산업 매거진 '오토테크 아웃룩'(Autotech Outlook)에서 '상위 10위 오토모티브 센서 솔루션'을 수상했으며 지난 6월 25일에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인디제이는 인공지능과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문화중심 도시 광주의 대표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펠레메드는 인공지능 기반 고효율 신약 개발 플랫폼을 사업화해 120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고속도로 법면에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설치

담양IC 인근 1만983㎡ 11월 착공

전남도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담양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983㎡ 면적에 1.2MW, 사업비 15억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

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으로 민간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입지다.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와 디자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착공 예정이다.

또 올해 5MW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3~5개소 정도의 추가 사업부지 발굴 및 입지

여건 분석을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까지 5MW 모두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발전수익금을 토대로 '에너지공영화 기금' 신설도 검토 중이다.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에너지사업 정책자금을 지원할 재원으로 확대·재생산하고 탄소중립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